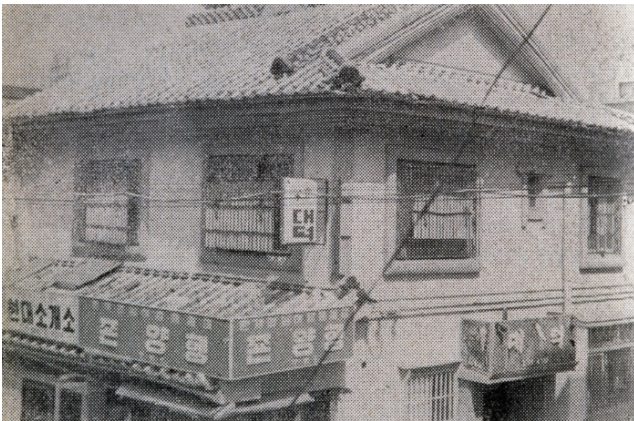


국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조달하다 - 백산상회

독립운동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독립운동 자금'이었다. 그런데 독립운동 자금의 조달과 전달은 언제나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는 임무였기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나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백산상회'이다. 백산상회는 1914년경 안희제가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산에 세운 회사이자 독립운동 단체이다.

현재 백산상회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고 자리했던 위치만 파악된다. 1994년 11월 부산광역시 중구는 백산상회 자리의 앞을 백산거리로 제정·공포하였다. 이어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동광동 3가 10-2번지에 백산기념관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치는 백산기념관 근처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3가 12번지로 현재 원룸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 1970년대에 촬영한 백산상회 건물



▲ 현재 백산상회 터에 들어선 프라임 원룸 건물전경



▲ 부산 중구에 위치한 백산기념관



▲ 백산상회 터 항공사진(2023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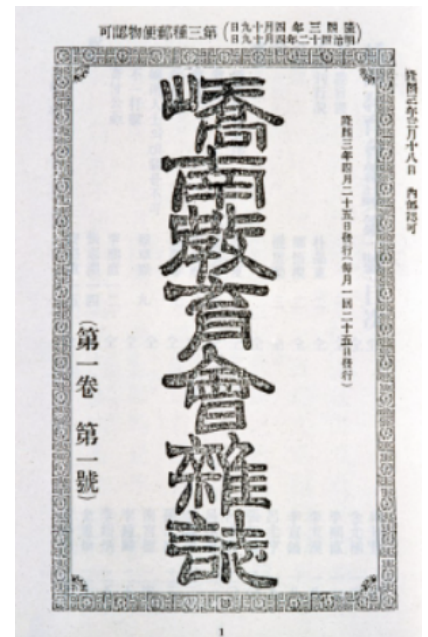


백산 안희제 (1885~1943)

1914년 9월 안희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남지역의 토착객주이자 전문경영인인 이유석, 추헌식 등을 영입하여 백산상회를 설립하였다. 국외에서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국내의 비밀연락망 구축과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고향의 논 2,000두락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였고 상회의 명칭은 그의 호(號)인 백산(白山)에서 났다. 1918년 11월에는 안희제의 계몽운동 동지이자 영남지역의 청년자산가인 윤현태, 최준과 함께 주식회사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이듬해 1월 14일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발기인 총회를 거쳐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19년 6월 기준 백산상회의 주주명단은 32명이었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인물 중 상당수가 달성친목회나 국권회복단에서 활동하였다. 설립 초기 백산상회는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개인상회였다. 합자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산물과 축산물 구매와 위탁 판매를 주로 운영했다. 영남의 대지주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산 최대 규모의 회사로 일본인 회사를 능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족기업으로 발전했다.

백산상회는 창립 후 국내 서울, 대구, 원산, 인천 등 18개소와 국외에는 중국 등 3개소에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상회의 영업 활동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한 연락과 독립운동자금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백산상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통해 국내를 행정적으로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통부를 설치하여 시위운동이나 의열투쟁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내 동포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백산상회는 연통부 주요 거점이 되어 각종 서신과 공문, 『독립신문』 등 임시정부 문서를 국내에 보급하는 통로이자 국내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안희제의 친필 (백산상회 용지)

백산상회는 손실을 거듭하였는데 이는 경영 부실 문제였기보다는 독립운동자금을 회사의 수지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자금 전달 방식은 항상 장부상 거래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다. 1921년 8월 백산상회는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를 맞았으나 사장 최준이 소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명맥을 이어갔다. 1925년 이후 주주와 증역 사이에 자금 횡령 문제로 서로 고소하는 일대 분규가 발생하여 사실상 영업 중지 상태에 빠졌고, 1928년 1월 29일에 자진 해산하였다.